

2014. 12. 23.(화)



보도자료

2014년 12월 23일(화) 배포 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문의 :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양한열 과장(☎2110-1410)
방송정책기획과 정인영 사무관(☎2110-1415) inyoung@kcc.go.kr

방통위, 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허용키로

- 전국적으로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·운영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12월 23일 EBS에 대해 지상파 다채널방송(MMS*)을 시범서비스 형태로 허용하기로 의결하였다.

* 지상파 다채널방송(MMS : Multi-Mode Service)이란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1개 지상파채널을 제공하던 기존 주파수 대역(6MHz)을 분할해 여러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

EBS MMS 시범서비스는 2015년 1월 말 편성 개편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며, 디지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추가로 1개의 채널을 더 볼 수 있게 된다.

이번 EBS MMS 시범서비스에서는 기존의 지상파 EBS 채널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·중학 교육, 영어 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.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무료 콘텐츠 확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상파 MMS는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도입되었으며, 국내에서도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청자 편익을 높이고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시청자의 시청행태, 기술적 안정성 및 방송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중 법·제도 정비 등 MMS 본방송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붙임 : 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방안. 끝.

<참고>

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방안

1. 도입 필요성

- (기술적 측면) 향상된 디지털 방송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시청자 편익 증진에 기여
- (사회적 측면) 가계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 및 교육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·중학, 영어 등 교육 콘텐츠 확충
- (경제적 측면) 방송통신발전기금, 특별교부금 등 공적 재원의 비중이 높으며 타 방송사 프로그램 대비 제작비 규모가 적은 EBS에 MMS를 우선 도입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

2. 도입방안

- (기간·장소) 전국 대상으로 '15년 1월 말부터 실시
- (서비스방식) MPEG-2 방식을 활용해 HD(720p*) 채널 1개 추가
 - * HDTV 해상도에는 1080i와 720p가 있으며 기존 지상파방송은 1080i로 제공
- (프로그램 편성) 초·중학 교육, 외국어, 다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
 -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2조*에 따라 국내제작 및 외주 제작 편성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
 - * 제12조(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)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(방송광고) 공익광고 외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음